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2. 14(목) / 총 2매(본문 2)	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	담당자	• 과장 안석환, 사무관 황성필, 주무관 정사랑 • ☎ (044)201-3804, 3788, 3785
담당부서	평창조직위 교통부	담당자	• 부장 이장원, 팀장 어승복, 매니저 이수연 • ☎ (033)350-5000, 5060, 5384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버스업계, 평창올림픽 성공적 수송지원 ‘발 벗고 나서’ 선산·정안 환승휴게소 ~ 개최지 간 무료 셔틀버스 운영 예정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(위원장 이희범)는 12월 14일(목)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-버스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 - 이번 업무협약에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,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,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국내 버스산업을 지탱하는 각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수송지원과 붐업에 기여하기로 하였다.
- 우선, 버스운송업계(고속·전세)는 수도권 대비 개최지까지의 버스노선이 부족한 영남권* 올림픽 관중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선산 환승휴게소에서 평창을 경유하여 강릉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올림픽대회 기간** 동안 1일 4회(왕복) 지원하기로 하였다.
 - * 호남권의 정안환승휴게소~개최지 간 무료 셔틀버스는 조직위가 운영 예정
 - ** 다만, 환승휴게소 운영은 기·종점 간 귀성·귀경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설 명절('18. 2. 15 ~ 18) 수송 특별교통대책기간(구체적 적용기간 미정)은 제외

○ 선산 환승휴게소까지 **고속버스***를 탑승한 이후 개최지까지의 셔틀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 수도권을 거치는 경우에 비하여 **이동시간을 약 2시간 단축**할 수 있어 **이용자의 편의를 도모**함과 동시에, **대중교통 활성화 및 자가용 이용 감소**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* 셔틀 좌석부족으로 인한 불편해소 및 자차 이용자 탑승제한을 위해 **고속버스 예약 시 셔틀 예약 시스템을 운영**할 계획이다, '18.1월 말 서비스 개시 예정

< 환승휴게소 셔틀버스 운영 개념도 >





□ 또한, 평창 올림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 봉사자 약 **21,000여 명**의 사기 진작과 편의 도모를 위하여 행사 전후('18. 1. 22. ~ 3. 20.) 기간 동안 전국의 시외 및 고속버스 전 노선에 대하여 **요금을 20% 할인***할 것을 확정하였다.

*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자격증명서를 버스 터미널에서 제시하여 할인 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할인율 적용 지원

□ 아울러, 버스운송업체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**올림픽 입장권을 공동으로 구매**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및 조직위 관계자는 “고속철도와 함께 국내·외 관광객의 개최지 이동을 위한 한 축을 맡게 될 **시외·고속버스가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에 기여**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직유예	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황성필 사무관(☎ 044-201-3788), 조직위 교통부 어승복 사무관(☎ 033-350-506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